전쟁 딛고 다시 선 뽀디봉 마을에 손 내밀다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 현대불교신문 공동기획

생명나눔으로 물들다

④ '지구촌 생명살림' 캄보디아 현장 下

3월 20일 뽀디봉 학교서 캠페인
국경분쟁 피해로 학생 70% 복귀
초중등·공예학교 교육·생계 지원
방치된 학교 건물 외벽 도색작업도
일면 스님 "변화 과정 함께 할 것"

캄보디아 시엠립=임은호 기자



생명나눔과 현대불교가 공동 주최한 '지구촌 생명살림 국제구호 캠페인'이 3월 20일 삼라옹 뽀디봉 마을에 위치한 수레꾼 뽀디봉 초중등학교 및 공예학교에서 진행됐다. 사진은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이 전쟁으로 방치됐던 학교 건물 외벽 도색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지난해 태국과 캄보디아 접경지역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의 상흔이 채 가시지 않은 캄보디아 최북단 삼라옹 뽀디봉 마을. 태국과 국경을 맞댄 이 지역은 얼마 전까지 이어진 분쟁으로 큰 피해를 입어 주민 대부분이 삶의 터전을 떠나야 했다. 한동안 비어 있던 마을에는 최근에서야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오기 시작했다. 아이들도 다시 학교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그러나 회복은 아직 진행형이다. 초중등학교를 비롯한 지역 학교들은 학생의 약 70% 정도만 복귀한 상태다. 교실에는 여전히 빈자리가 있고 건물은 곳곳이 낡은 채로 방치돼 있다. 그럼에도 아이들은 다시 모여 앉아 글을 배우고 기술을 익히며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다. 전쟁의 상흔을 딛고 삶을 다시 꾸려나가려는 뽀디봉 마을 아이들을 위해 한국 불교계가 손을 내밀었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스님, 이하 생명나눔)와 현대불교신문(대표이사 한명우, 이하 현대불교)이 공동 주최한 '지구촌 생명살림 국제구호 캠페인'이 3월 20일 삼라옹 뽀디봉 마을에 위치한 수레꾼 뽀디봉 초중등학교 및 공예학교에서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학교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물품 지원과 교육 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펼쳐졌다.

뽀디봉 초중등학교와 공예학교는 재가불자 NGO 자비를 나르는 수레꾼(대표 오시환, 이하 수레꾼)이 운영하는 교육기관이다. 수레꾼은 2008년 초등학교 설립을 시작으로 2012년 중학교를 세웠다. 2024년에는 공예학교를 설립해 봉제반과 목공예반을 운영하고 있다. 학생들이 학업과 더불어 기술을 익혀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다. 설립 2년 차에 접어든 공예학교는 이제 교육기관을 넘어 마을 재건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쟁과 빈곤 속에서도 청소년들이 기술을 배우며 미래를 준비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다만 교육 기자재 부족과 시설 노후화, 전쟁 여파로 인한 강사 수급의 어려움 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생명나눔과 현대불교가 '자비를 나르는 수레꾼' 역할을 자처하며 물품 지원에 나선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양 기관은 이날 쌀 1000kg, 라면 100박스 등 식료품을 비롯해 노트북 8대, 자전거 10대, 영양제와 학용품 등을 전달했다. 노트북에는 교육 환경 개선의 의미가, 자전거에는 통학 거리가 먼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 담겼다.

전달식에서 생명나눔 이사장 일면 스님은 "오늘 전달되는 물품이 학생들의 배움과 주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기를 바란다"고 학생들을 격려했다.

한명우 현대불교 대표도 "전쟁의 아픔을 딛고 다시 일상을 만들어가는 여러분의 모습이 희망"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와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띠엥힘 뽀디봉 공예학교 교장은 "이번 지원이 학교와 지역사회에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아직 돌아오지 못한 주민들과 채워지지 않은 교실의 빈자리처럼 회복은 진행 중이지만 전쟁으로 무너진 일상 위에 다시 삶을 쌓아가는 지역 공동체에 변화를 줄 것"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일면 스님과 한명우 대표는 전쟁으로 방치됐던 학교 건물 외벽 도색 작업에도 함께하며 교육 환경 개선에 힘을 보탰다. 또 공예학교 학생들이 직접 만든 가방을 구매하며 청년들의 자립 기반 마련을 응원했다.

한편 생명나눔과 현대불교은 2024년부터 캄보디아를 직접 찾아가 취약계층에 의료·교육·생계를 지원하는 국제구호 활동을 지속해왔다. 올해는 3월 18~23일 캄보디아 시엠립과 삼라옹 일대에서 활동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나누며하나되기, 로터스월드, 자비를 나르는 수레꾼을 비롯해 서울 조계사와 봉은사, 남양주 봉선사, 한마음선원, 조계종 중앙신도회와 리더스포럼 등의 후원으로 약 1억원 상당의 물품이 마련됐다.



생명나눔 이사장 일면 스님과 한명우 현대불교 대표(맨 왼쪽)는 뽀디봉 초중등학교에 노트북 8대를 전달했다.



일면 스님은 공예학교 봉제반에서 작업 중인 학생들을 격려했다.



생명나눔과 현대불교는 전쟁의 상흔을 딛고 삶을 다시 꾸려나가려는 뽀디봉 마을 아이들에게 희망을 선물하기 위해 학교에 방문, 물품을 지원했다.

캄보디아 구호 이끈 일면 스님 "지속 후원 체계 구축"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이 3월 18~23일 캄보디아 시엠립과 삼라옹 일대에서 진행된 '지구촌 생명살림 국제구호 캠페인'을 통해 해외 구호 활동의 필요성과 지속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일면 스님은 이번 방문에서 사찰과 학교, 취약계층 주민들을 직접 만나 현지 상황을 점검하고 물품 지원활동을 이끌었다. 특히 지역의 교육·생활 여건을 살펴보며 향후 지원 방향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일면 스님은 "현장에 직접 와보니 자료로 접할 때보다 상황이 훨씬 절박하게 느껴졌다"며 "기본적인 생필품이 부족할 뿐 아니라 교육 환경 전반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찰은 지역 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하고, 학교는 아이들의 미래를 지탱하는 중요한 공간"이라며 "이 두 축을 함께 지원해야 실질적인 변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고 밝혔다.

"직접 본 현장은 환경 훨씬 척박"
사찰 중심 지역 공동체 지원 병행

특히 태국과의 분쟁지역이었던 삼라옹 뽀디봉 마을을 방문한 후에는 "전쟁의 상처가 여전히 남아 있는 지역으로 주민들이 최근에서야 돌아와 삶을 다시 시작하고 있었다"고 전하고 "학생들도 일부만 복귀한 상태였지만 배움을 이어가려는 의지가 인상적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공예학교에서 기술을 배우는 학생들을 보며 교육이 곧 생계와 직결된다는 점을 실감했다"며 "이러한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이 장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전달된 물품에 대해 "물량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긴 마음"이라며 "한국 불자들의 정성이 현지 주민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지에서 직접 물품을 나누며 주민들과 눈을 맞추는 과정 자체가 큰 의미였다"며 "단순한 지원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해외 구호 활동 의지도 분명히 했다. 일면 스님은 "일회성 지원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며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춰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 지원을 확대해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필요하다면 장학 지원이나 시설 개선 사업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사찰을 중심으로 한 지역 공동체 지원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며 "의료 지원과 생필품 지원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일면 스님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현지 주민들의 모습이 저에게 큰 가르침이 됐다"며 "이 인연을 소중히 이어가며 부처님 자비를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시엠립=임은호 기자



일면 스님이 뽀디봉 초중등학교에서 만난 학생을 격려하고 있다.

"휘어버린 등만큼
잠들지 못하는 하늘이의 밤"

뇌병변 하늘이, 척추 90도 휘어 밤마다 고통…
척추보조기 교체 시급하지만 재활·수술비 마련도 막막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정기후원신청 02-734-8059
후 원 계 좌 농협 053-01-243778 예금주 : (사)생명나눔실천본부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

